κόκκος 3

2019 MAR VOL. 204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

자율개선대학 시대에 발맞춰 대학혁신사업을 이끌어가게 될 혁신사업단이 밀알관 2 층 역사실에 모여서 소명 의지를 다짐했다 . (왼쪽 김중완 행정지원 담당 , 김인화 성과관리 담당 , 유정선 일립교육 담당 , 김은호 사업단장 , 조윤경 총괄위원장 , 진달래 비교과프로그램관리 , 권경만 사업관리 담당). [관련기사 2, 3 면]

「교수가 변해야 학생이 변하고 학생이 변해야 대학이 변한다」

대학혁신사업안 발표 ,
4 대 전략방향 , 24 개 추진과제

우리대학의 혁신안이 발표되었다. 정식 명칭은「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혁신사업 계획」(이하 혁신사업) 이며 골자는 4 가지다. 1. 일립교육 체계 강화 2. 혁신적 교육 체계의 제고 3. 행 / 재정 인프라 확충 4.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이다. 일립교육 체계의 혁신은 건학이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철저히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 된다. 교육체계의 혁신은 통합적 체계 구축, 취창업 지원 확대, 교수와 학생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행 / 재정 부분은 낙후한 시설 개선에 맞춰 학생 친화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향이 전개 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는 이번 혁신안 중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의 하나로 학교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분야다. 이 같은 4 가지 큰 전략방향을 수행하기 위해 24 개 추진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혁신사업 전체의 밑바탕에는 '혁신은 사람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뜻이 흐르고 있다. 혁신 슬로건도「교수가 변해야 학생이 변하고 학생이 변해야 대학이 변한다」로 정하고 사업 아이템의 제 1 목표를 사업 주체인 리더와 참여자의 변화 시도를 포함한다. 혁신 운동의 점화는 대학 구성원인 교수자 (교수와 직원) 와 학생을 하나로 묶어 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육 (가르침) 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개혁안의 전제이다.

혁신사업은 3 년으로 제 1 차 년도에는 교수자의 변화에 방점을 두었다. 교실의 변화는 교수의 변화 (사명감) 가 선행되어야 하며, 강의의 변화 (질적 향상) 도 교수의 변화 (최신의 전문지식과 철저한 준비) 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안 수행은 변화 과정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 진전을 모니터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 2 차 년도에는 학생의 변화를, 3 차 년도에는 공동체의 조화된 변화를 시도한다.

이번 혁신사업 중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행 / 재정 인프라 구축 쪽이며 학우들은 학교의 변화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1 차년도 혁신예산 14 억 6 천 6 백만 중 35% 가 넘는 약 5 억을 전산장비 (예, 서버구입) 와 수업기자재 개선에 사용되며 2 차, 3 차년에도 수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강우정 총장은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계획서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혁신은 행동이고, 하루하루의 일과일 뿐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혁신을 이룰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사람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미니설교 염려하지 말라 (마 6:25~34)

박태수 목사(성서학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의식주 문제, 자녀, 건강, 학업, 안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 염려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지면 의심, 초조함에 매이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사람의 염려를 잘 아는 예수님은 염려라는 단어를 7 회나 사용하며 세 번씩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 사람의 염려는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26 절)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고 하신다. 작은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all these things) 있어야 할 줄 아시고 (32 절), 이 모든 걸 더하시는 (33 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자. 사도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e anxious for nothing) 다만 모든 일 (in every thing) 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2019 년 새 학기를 시작하자.

2019 년 '전도의 해' 개강 , 힘찬 출발

강우정 총장 ,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이 흠모하는 대학'

▲ 학우들이 교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

2019 학년 '전도의 해' 출발을 알리는 개강예배가 4 일 12 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성서공동체에 새롭게 승선한 신 • 편입생과 재학생 및 교수와 교직원이 자율개선대학시대를 맞는 첫 포문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

김은호 부총장이 '처음 이야기' (창 1:1~2) 의 말씀에서 "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한 첫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영광을 함께 실현토록 하기 위한 목적의식 " 에 의해서이다 . " 우리는 이 숭고한 계획의 부르심을 이어갈 첫 출발점에 서 있다 .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인 우리 모두가 어둠을 넘어 빛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이번 학기를 창조해 나가자 " 고 강조했다 .

강우정 총장은 " 자율개선대학 시대를 맞는 우리대학의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는 우리 대학의 설립의 뜻을 새롭게 하는 것 " 이라고 전제하고 "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복음전도자 양성의 뜻을 올곧게 이어 가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대진 예음총학 회장은 "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섰다 .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따르는 성숙한 학우들 되자 " 고 기도했다 .

마지막으로 학우들과 성서공동체가 새 학기 시작을 알리는 교가가 힘차게 이어졌다 . 긴 겨울 방학을 떨치고서 자신을 향해 새롭게 다짐하는 의지와 열정의 포효였다 .

" 뉘라서 이 기쁜 소식 만방에 전하리오 ! 한성의 건아들이여 , 네오 내오 이니라 "

2019 년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인사 발표

단장 김은호 부총장 ,
총괄위원장 조윤경 전공교육부장

▲ 단장 김은호

▲ 총괄위원장 조윤경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될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인사가 발표되었다 .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단장에는 김은호 부총장이 선임됐다 . 김 부총장은 혁신사업안 수립과 운영의 전 과정을 지휘하며 조윤경 전공교육부장이 총괄위원장으로 영역별 사업을 총괄한다 . 각 영역 책임자는 유정선 일립교육부장이 일립교육 담당 , 김중완 행정본부장은 행정지원 담당으로 임명 되었다 . 성과관리 영역을 김인화 평가감사실장이 담당하며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전담으로 진달래 교수학습센터 계장이 합류토록 하였다 . 권경만 기획실장은 사업관리담당으로 임명 되었는데 그는 사업단의 전체 코오디네이터로서 조윤경 총괄위원장을 도와 혁신사업 전체의 추진을 견인하게 된다 .

강우정 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 대학의 본래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학교의 특성화를 기약하고 성서적 기반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정직하고 충성스런 사회인을 길러 내는 일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 지표는 자연히 따라 오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총괄단장 김은호 (겸 부총장)
▲ 총괄위원장 조윤경 (겸 전공교육부장)
▲ 일립교육 담당 유정선 (겸 일립교육부장)
▲ 행정지원 담당 김중완 (겸 행정본부장)
▲ 사업관리 담당 권경만 (겸 기획실장)
▲ 성과관리 담당 김인화 (겸 평가감사실장)
▲ 비교과프로그램 관리자 진달래 (겸 교수학습센터 팀원)

2019 학년도 새내기들은 누구인가 ?

2019 년에 새로 입학한 성서 새내기들은 풋풋하다 . 부푼 꿈을 안고 입성한 자랑스러운 이들의 의지와 패기가 눈부시다 . 부모님과 형제 가족 , 주변 지인의 성원을 받으며 멋지게 용틀임하게 될 새내기들의 당찬 함성을 옮겨 본다 .

성서학과 김율의 _ 성적장학금 도전 , 말씀 안에서 살기

대학생 됐다는 기쁨이 크고 더 많은 친구들과 새로운 만남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것도 즐기는 상황이라서 편하게 다가와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 마케팅 회사에서 세상적 사람이 되어갈 때 누나와 형은 KBU 서 주 (主) 의 사람이 되는 걸 보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결정했습니다 . 성적장학금 받도록 최선 다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학과 김영지 _ 해외 단기선교에서 보람과 희생 배울터

어른들의 틀을 벗어나 기쁘며 하고 싶은 공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 저는 ' 땅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서툰 새싹 ' 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 작은 도움이 상대에게 위로와 따뜻함 될 수 있는 게 가슴에 와 닿아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 친구들과 해외 단기 선교에 참가해서 보람과 희생정신 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 약자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 유능한 사회복지사를 그립니다 . 말씀 안에 바로 선 대학이며 신앙이 굳건해질 것 같아 안심 된다 .

영보학과 정라함 _ 심리상담 자격 취득 , 몽골 땅 밟고 싶다

고교 때와 달리 자유가 생겼다 . 새 친구들과 흥미 있는 과목을 공부 할 수 있어 기대된다 . 심리분야에 관심 많고 고민상담도 가능하니 찾아 주세요 . 아이가 좋아서 택하였고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고 싶었다 . 학교 내 혜택들 ,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 타고 교내근로 경험도 쌓고 싶다 . 교직생활하며 심리상담 자격을 취득하고 몽골 땅을 다시 밟아볼 것이다 . 학교 분위기가 따뜻했고 공부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1 석 2 조의 귀한 학교라 생각한다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류승형 _ 학과 수석 목표 , 뛰어난 ICT 전문인

늦게 집에 가도 혼나지 않는다는 사실 , 20 살인데 어른이 다 된 기분이에요 ! 웃을 때 ' 뽀로로와 친구들 ' 에 나오는 에디를 닮아서 별명이 여우 , 혹은 에디이다 . 긍적적 삶의 방식을 좋아한다 . 우리 컴소학과의 진로 폭이 넓어보였고 개인적으로도 웹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 학과 수석을 목표로 장학금에 도전해보고 싶다 . 웹 분야와 ICT 전반에서 인정받는 전문인 .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이 곳곳에 스며있는 뛰어난 학교라고 생각한다 .

간호학과 김소연 _ 해외 봉사 , 역량을 갖춘 전문 간호사

1 년간 진학을 위해 엄청 고생한 결과 원하던 간호 대학생이 됐다 . 설레고 가슴 벅차다 . 단순 성격에 통통 튀며 도전과 승부욕 많고 노력을 좋아하는 동그라미와 같다 .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도울 때 행복해서 간호사를 목표하였다 . 재학중 해외봉사를 꼭 다녀오고 싶다 . 내가 선택한 간호사여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역량있는 전문간호사로 성장해 환자를 돕고 있을 것이다 . 학교 색채가 확실해서 좋고 수강 신청과 , 개강일만 기다려진다 !

제 64 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

송태근 목사 , ' 세 가지 준비 ' 설교

학사 231 명 , 석사 66 명 , 박사 1 명에 학위기

▲ 총장상을 수상중인 진예은 학우

제 64 회 졸업예배가 19 일 오후 2 시 로고스홀에서 거행되었다 . 학부에서는 성서학과 54 명 , 사회복지학과 66 명 , 영유아보육학과 45 명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16 명 , 간호학과 47 명 등 전체 228 명의 학우가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 . 평생교육원에서도 성서학 2 명과 영유아전공 1 명이 학사학위의 값진 영예를 차지하였다 .

대학원에서는 이소리 원우 (일반대학원) 가 철학박사 학위로 영광을 누렸다 . 이외에도 일반대학원 7 명 , 신학대학원 30 명 , 사회복지대학원 10 명 , 보육대학원 19 명 등 전체 66 명의 원우가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

진예은 (사복) 학우가 영예의 총장상 (5 명) 과 이사장상을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고 대학원 총장상을 박선희 (일반대학원) 원우가 수상의 기쁨을 누리는 등 총 학부와 대학원 전체 19 명의 주역이 영광을 차지했다 .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 세 가지 준비 '(딤후 2:15)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 첫째 , "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 둘째 , " 부끄럼 없는 능력을 겸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아를 드리는 겸손한 자 " 셋째 , " 자신의 모두를 하나님 처분에 맡겨 드리는 속한 자 " 의 모습을 당부했다 . 위의 3 가지를 평생 지켜나갈 때 " 주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것 " 이라며 장도를 기원하였다 .

강우정 총장은 권면사에서 " 말씀과 기도 , 예배가 삶 전반에 흘러야하며 교회출석 " 을 강조했다 . 이어 " 정직은 신앙인의 강력한 무기와 힘이다 . 입사 후 최소 3 년은 근무할 끈기력과 비전있는 신앙인을 배우자로 선택하라 " 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 쉼과 휴식으로 내면을 충전해가는 지혜로운 성서인이 되어달라 " 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

김창원 이사장이 " 밀알정신으로 무장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선도자로 성장해 달라 " 고 격려하였고 박선 이사가 " 미지를 향해 출발하는 졸업생 모두에게 말씀안에서 소통하는 은혜를 부어달라 " 며 기도했다 .

법인 감사에 이성화 목사 선임

2019 년도 제 2 차 이사회

2019 년도 제 2 차 이사회가 19 일 진행되었다 . 이번 이사회에서 신규임원 선임의 구체적인 자격과 근거의 정관 조항 추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정관에 신설된 조항은 마태복음 28 장 18~20 절에 근거해 성서적 신앙관 요구와 10 년 이상 세례교인 , 건학이념 구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 . 교직원 정년안과 보직임명 완화 및 부속시설의 부서장 임명 등도 통과되었다 .

이밖에도 방진희 , 정진애 교수의 겸임교수 신규 임용을 승인하였으며 법인 감사에 이성화 목사 (서문교회) 를 선임하였다 .

교목실장 유정선 교수 선임

2019 년 대학보직 소폭 인사

▲ 유정선 교수

강우정 총장은 21 일 2019 년 대학보직 인사를 발표하였다 . 이번 인사에서 유정선 일립교육부장이 교목실장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 휴직을 신청한 간호학과장 안현미 교수 후임에는 고미숙 교수를 학과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성서적세계관교육과 협력교수로도 임명 되었다 .

일립생활관장 조현진 (성서) 교수 , 보건실장에 최은희 (간호)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시설관리팀으로 이은광 대리를 전보시켰다 .

▣ **일립교육부**

▲ 교목실장 유정선 (겸 일립교육부장)

▲ 성서적세계관교육과 협력교수 고미숙 (겸 간호학과장)

▣ **전공교육부**

▲ 간호학과장 고미숙

▣ **행정본부**

▲ 일립생활관장 조현진 ▲ 보건실장 최은희 ▲ 시설관리팀 이은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2019 년도 FT,
강사 노진준 목사 (LA 한길교회)

3 월 11~13 일 , 양수리 수양관

▲ 노진준 목사

2019 학년도 ' 전도의 해 ' 를 맞아 성서공동체가 참여하는 FT(Faith Training) 가 3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 2 박 3 일간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양수리 수양관에서 펼쳐진다 . 올해 FT 주제는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이다 .

주 강사는 노진준 목사 (LA 한길 (세계로) 교회 담임). 첫째 날 ' 회개와 믿음 ' 을 둘째 날 ' 전도자의 조건 ' 제목으로 전도에 합당한 성서인으로서 의지와 실천이 이어지도록 말씀을 전하게 된다 . 노 목사는 미국 메릴랜드의 Towson University 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에서 M.Div. 와 변증학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 특강강사로 김경아 집사 (개그우먼) 가 초청된다 . 방송생활에서 체험한 신앙과 기도의 간절함을 전하며 학우들의 전도의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찬양단으로 널리 알려진 3 인조 보컬 ' 좋은 이웃 ' 이 참여한다 . 시각 장애의 역경을 딛고 주님을 전파해가는 감동과 은혜의 실화를 찬양과 함께 전하게 된다 .

이번 FT 를 총괄하는 신앙훈련과 이광삼 목사는 " 말씀과 특강 등 관련 프로그램 모두가 ' 전도 ' 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 복음전도자로서 실천적 삶의 방향성이 적극 제시되고 이를 현장에서 펼쳐주는 은혜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다음은 이번 FT 안내 사항이다 .

▲ 일시 : 2019 년 3 월 11(월) ~ 13 일 (수)
▲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 2 리 101
▲ 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 교수 , 교직원 , 평생교육원 원우 , 형제기관 임직원
▲ 준비물 : 성경 , 필기구 , 세면도구 , 여벌옷과 운동화 및 편안한 의복
▲ 문의 : 950-5439 (신앙훈련과)
* FT 참석은 재학 중 강의과목과 채플에 반영됨 .

2019 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로 양육할 터"

▲ 학부모 대표로 기도하는 배정환 목사

2019 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가 23(토) 일 오후 3 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신입생 학부모 123 명이 참석해 예배 , 환영 및 학교소개 , 학과별 간담회 순서로 이어졌다 .

김은호 목사 (성서학과) 가 ' 누룩 비유 '(마 13:33) 로 말씀을 전했다 . " 우리 대학은 세상에 생명을 거듭나게 할 복음전도자 양성의 목적으로 설립됐다 . 작은 유익균 한 줌이 부패를 막고 본질을 되살려가듯 한반도 복음화의 사명에 매진할 것이다 . 탁류가 난무해가는 이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로 양육되도록 노력과 사랑을 쏟아가겠다 " 고 밝혔다 . 배정환 목사 (배선아 학우 아버지) 가 하나님의 반석위에 바로 서도록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

2 부는 학부모와 학과 교수가 함께하는 전공별 간담회로 이어졌다 . 교수들은 학과 비전과 취업현황 및 전공학습 , 주요 학사일정 , 신앙훈련을 안내하고 학사관리 외에도 학교적응의 적절한 팁 등을 전했다 . 한 학부모는 " 학교를 몰라 답답했던 것들이 오늘 해소됐다 . 정말 선택 잘 했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올바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

강우정 총장은 환영사에서 " 우리대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학을 향해 걸어왔다 . 보내주신 자녀를 세상이 흠모하는 인재로 반드시 키워 갈 것이다 . 4 년 후 변화를 기대해달라며 성서가족 됨을 환영했다 . 최육렬 입학처장이 교육목적과 신앙 및 학생지원 등 우리 대학의 A 형 교육체계도를 소개하였으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자녀를 양육해 가자고 말하였다 .

대외협력팀은 신입생학부모들에게 학교 돕기도 권유하였는데 약정서 60 구좌 등 1 천여만 원 상당액을 즉석에서 후원해주었다 .

간호사 국시 100% 합격 , 6 년 연속 영광

사복 1 급 83.3% 합격 , 전국 평균보다 2.4 배 높아

지난 25 일 치러진 '제 59 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우리대학 간호학과 응시자 47 명 전원이 합격하며 간호사 자격 취득의 값진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합격은 간호학과 개설 후 6 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안현미 간호학과장은 "학우들의 4 년간 노력이 결실로 맺어져 감사하다. 시험과 취업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준 동료교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졸업생 전원은 서울과 수도권 내 대학병원과 국공립 및 사립의료기관에 취업을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지난 1 월 19 일 치러진 '제 17 회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시험' 결과 45 명이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시험에는 졸업자 61 명중 54 명이 응시(88.5%)하였으며 최종 합격률은 83.3% 를 달성했다. 참고로 올해 전국 평균 합격률은 34.5% 이다. 우리 학우들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2.4 배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줬다.

김성호 학과장은 "올해 시험난이도가 높았음에도 합격률이 높아 기쁘다. 그동안 시험 준비에 집중한 학생들의 값진 결과이며 개별지도와 특강에 힘써 주신 교수님들, 응원으로 함께한 학과 후배 모두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진호 교수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선정

「... 얼굴 인식 기술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연구비 9 천만 원

▲ 한진호 교수

기초교육원 한진호 교수의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기초연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과제명은 「얼굴변형에 강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머신러닝 기반의 얼굴인식 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기간은 3 년간이며 9 천만원의 연구비로 해당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얼굴인식 성능 개선의 관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얼굴변형까지도 인식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둔다. 개인의 얼굴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관련 기술 암호화는 물론 머신러닝 학습법까지 적용시킬 계획으로 결과가 크게 기대된다.

한 교수는 "외부기관 연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이라서 책임감이 더 크다. 우수 결과물 도출은 물론이고 연구과정에 한 알의 밀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승강기 교체 365 천사 모집 현황(목표금액 1억 8천만원) (2019. 2. 9 ~ 2019. 3. 3)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용 대표)	1,200,000	강순성 (동문, 49회)	100,000
이은광(시설관리팀 대리)	1,000,000	권오찬 (신대원, 53회 김현정 동문가족)	50,000
신창제일교회 (이석진 목사)	100,000	합 계	2,550,000
권명희 (신학대학원 원우)	100,000	누계총액(2018.12.1~2019.3.3/약정액 포함)	167,683,555

서문교회 승강기 교체에 6 백 여만 원

“복음전도자 양성 목적이 순전하게 이뤄지길”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 , 28 회) 성도들이 장애우 승강기 교체에 사용해 달라며 6 백 24 만원을 후원해 주었다 . 이성화 목사는 " 모교 후배들이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 성도들의 마음이 더해져 관련 공사가 잘 진행되고 이를 통해 복음전도자 양성 목적이 순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기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 목사는 지난 1 월 20 일 강우정 총장을 초청 ,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학교의 형편을 전하게 하며 교우들과의 상면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 현장에는 최육렬 평생교육원장과 이은광 대외협력팀장이 자리 하였다 .

설립 35 년째의 서문교회는 부천시 원미구내 고층아파트와 인접해 있으며 미래 세대 사역이 왕성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

두암산업 승강기 교체 후원금 3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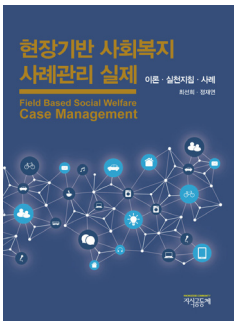
“성서대학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두암산업 (주) 김진우 대표가 우리대학교 장애인 승강기 시설 교체를 위해 3 백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

김 대표는 " 그동안 승강기 문제로 여러 학우들의 불편함이 상당했을 것 같다 . 작은 물질이 모여서 시설이 개선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 . 복음의 본질만 바라보고 소명을 다해온 성서대학교와 관계되어서 나도 기쁘다 " 고 말했다 .

두암산업은 건축업이 주 종목이다 . 현대인의 생활패턴을 주거환경에 접목시킨 도심형 생활주택건설로 서울 서남권에서 저변을 넓혀가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 대학의 각종 행사에도 관심과 사랑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주님의 사업체다 .

최선희 교수 ,『현장기반 사회복지 사례관리 실제』출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핵심 분야로 알려진 ' 사례관리 ' 전반을 밀도있게 다룬『현장기반 사회복지 사례관리 실제』가 최선희 (사복) 교수에 의해 발간되었다 .

최근 들어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전략 대부분은 ' 사례관리 ' 에 기반한 삶의 다양성에 알맞는 정책개발로 진화해 가고 있다 . 이러한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저자는 한 때 몸담았던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시절부터 접목해 왔었다 . 재임시절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던 ' 사례관리 ' 매뉴얼의 최신 결과물들을 학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듬어낸 지침서라 할 수 있다 . 사례관리 이해 , 관리전문성 , 관리실천 , 운영체계 및 전망과 방향 등이 치밀하게 녹아들어 있으며 제자 정재연씨와 공동 저술하였다 .

『현장기반 사회복지 사례관리 실제』최선희 · 정재연 공저 / 지식공동체 / 365p/ 19,000 원

한인들의 게토 , 일본 우토로 마을을 찾다

청춘기획단 ' 다이나믹 ',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전해

청춘기획단 ' 다이나믹 '(59 회 단장 박아론 , 29 대 총학회장) 이 방학 기간 중 일본 우토로 마을을 찾아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전하고 돌아왔다 . 방문단은 우리대학 7 명 , 타 대학 1 명 등 모두 8 명이다 . 우토로는 일제 강점기 시절 징용된 우리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살며 생존을 이어가던 열악한 거주지다 . 최근 도시 개발의 붐을 타고 외지로 내몰릴 위기에도 처했었는데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 도움으로 겨우 거처가 마련된 곳이며 120 명이 살고 있다 .

구정일과 겹친 2 월 4 일 ~8 일 일본 교토시 외곽지역의 우토로 마을을 찾았다 . 약 120 여명의 상당수가 고령자 . 정착 1 세대인 고령의 강경남 할머니가 적극 맞아주었다 . 경상도가 고향이라던 얼굴에서는 향수와 그리움이 눈빛에 가득하였다 . 마을회관인 에루화에서 주민들과 마주했다 . 정성껏 준비한 대형 모자이크 액자와 드림주머니 120 개를 전하였다 . 5 개월간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선물이었다 .

액자는 대형 모자이크 사진형태이며 1 천여 명의 얼굴을 새긴 작품이다 . 평화의 상징 비둘기로 형상화하였는데 이곳 어르신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뜻을 담은 액자다 . 드림주머니에는 귀마개 , 목도리 , 장갑 등 우리 고유의 것들과 간식 , 정성스런 손편지까지 넉넉히 담겨 있는 선물 주머니이다 . 액자와 드림주머니 의미를 소개하니 어르신들 눈빛이 뜨거워졌다 . 전하는 우리도 감사하였다 . 액자는 마을회관 중앙에 걸어 놓겠다고 했다 . 방문단은 정착 과정에서 겪었을 눈물겨운 여정을 경청하고 장구 가락에 맞춰 함께 소통하면서 지난했던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 떠나오는 날 어르신들 손끝에서 느껴진 메마른 체온이 모두를 스산하게 했다 .

사회적 스펙을 쫓기보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고픈 열혈청년들의 이번 우토로 방문은 5 개월을 준비한 결과였다 . 모금을 위해 카카오에 소셜 펀딩을 올려봤다 .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며…. 호응이 ? 그러나 직접기부 108 명과 참여기부 5 천여 명이 다이나믹의 당찬 의기에 적극 화답을 해줬다 . 모두는 가슴이 벅찼다 . 맨땅에 헤딩하기 , 성공이었다 .

다이나믹의 이번 우토로 방문을 국내 언론에서도 관심있게 다뤘다 . 스펙이 아닌 열정적 삶을 사는 청년들 .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몸으로 전하며 시대를 깨우는 빛을 보여줬다고 소개하였다 .

이번 다이나믹 4 기 참가 멤버들은 박아론 단장과 이인재 , 이한빈 (4) / 윤성민 , 박예은 (3) / 오동영 , 유희주 (2) 학우 등 사복학우들과 신혜림 (국민대학 신소재학과 3 년) 이다 .

▲ 대형모자이크 액자

▲ 드림주머니를 전하고 있는 모습

▲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 강경남 할머니 댁에서

총장 컬럼
총장 강우정

총장이 신입생들에게 주는 다섯 가지 조언

학교에서 3 월은 스산했던 캠퍼스가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학우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1. 대학의 생리 특히 우리대학의 생리를 빨리 파악하십시오. 모든 공동체는 나름의 특성이 있는 법입니다. 거기에 적응하는 법을 빨리 터득하는 것은 사막에서 모래를 파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두는 길입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자연히 적응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 학교와 구성원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나 둘 특징을 적어 나가면 생리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자신이 택한 전공을 후회하지 마셔요. 대학에서의 전공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대적' 은 아닙니다. 어떤 전공을 택하던 보통 사람은 자신이 택한 전공에서 보통의 성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전공 선택에 대한 자책감과 후회가 길어지면 그것이야말로 본인의 장래를 위해 큰 해악이 됩니다.

3. 친구를 사귀세요. 특히 장애우 친구, 유학생 친구는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여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친구는 되어 주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 선배, 후배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4. 전공과 관련된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십시오. 자격시험은 학업의 목표도 되고 성취감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도 따라오고 앞날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5.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 (All scrlipture is) 은 하나님의 숨쉬심 (God breathed) 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없어요. 숨 쉬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직원 컬럼
최지은 팀장 (도서관)

축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

2 년 전 큰 아픔이 닥쳐왔다. 내게 큰 산이신 아버지를 여위었고 얼마 후 영원한 멘토인 어머니까지 쓰러지고 말았다. 믿기 힘들었다.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시던 어머니여서 충격이 더 컸다.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듣고 싶지도 느끼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둡기 만한 상황 속에서 삶은 울 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주지 않았다. 꼬맹이들은 이런 엄마의 슬픔과 무관하게 날마다 밥 달라고 함께 놀아달라며 아우성이다. 직장에서는 업무가 나를 재촉한다. 이 상황들이 말이 되는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마치 인생게임 코스를 지나듯이 시간에 몸을 맡긴 채로 나는 둥둥 떠다녔다.

그러던 중 영성수련회에서 강사의 이 한 마디가 나를 흔들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였다. '약속' ? 갑자기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복의 복을 주리라." 그래, 난 여태껏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건 확신 자체였고 하나님과 나의 전적인 신뢰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날 위해 마음깊이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사랑하는 남편과 훌륭한 시부모님이 있다. 삶의 원천인 귀염둥이 율남매,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지금의 환경을 유지해주는 어머니, 진심으로 마음 나눠주는 교회와 친구들, 특히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일할 수 있는 한. 국. 성. 서. 대. 학은 나에겐 정말 축복이었다.

매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시며 늘 동행해 주신다. 축복과 감사의 언어가 내 삶속에 다시 들어왔다.

축복은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는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느낀다.

교수 컬럼
김정원 교수 (성서학과)

'칠포세대 극복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세대를 삼포세대라 불렀는데 요즘은 '칠포세대'란 말을 합니다. 7 가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꿈, 희망)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칭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길 청년 실업, 심지어 청년 실신이란 단어로 표기합니다. 실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칠포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면 칠포세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청년들이 안고 있는 칠포세대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와는 다르게 돈과 명예를 소유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돈과 명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칠포세대의 고민과는 다른 고민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 왔던 부자 청년은 고민 하나를 더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명예를 버린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돈과 명예입니다. 돈과 명예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칠포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칠포세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외래교수 컬럼
이소리 교수 (고급 히브리어)

하다가 말다가

새로운 학기의 시작은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라는 뜻이 되므로 기대와 설렘만큼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담과 어려움을 의미 있는 결과와 성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후배님들은 학업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16 주 시간은 짧지 않고 우리의 의지력도 길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학부생 시절, 이 캠퍼스에 머물며 '하다가 말다가'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속되는 '하다가 말다가'는 학업뿐 아니라 매사 삶의 태도를 무기력이라는 정류장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 뒤 그곳에 가만히 서서 저 자신을 자책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귀한 후배님들은 제가 겪었던 이 굴레를 겪지 말거나, 빠르게 돌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글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하다가 말다가 하는 잘못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기질과 습관의 치우침, 물욕의 가림, 세상사의 구속, 이 세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진실한 공부를 방해하는 세 가지' 중에서」

귀한 후배님들! 새로운 계획 세우기 전, 앞의 글귀처럼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하다가 말다가'하게 되는지 자세히 생각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도 반드시 찾아올 이 지점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재와 노트에 학번과 이름을 쓰고 흡족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괴롭지만 성장을 가져다주는 발판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하다가 말다가'를 뛰어넘어 목표한 대로 진실한 공부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 이소리 교수는 본교 학부(2008 년, 성서학과)를 졸업하고 본교 일반대학원(2019 년, 구약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되어가는 것(BECOMING)

설날입니다. 설의 풍경은 대개 어린 시절에서 오는데 마당의 멍석, 놋그릇, 무를 넣어 끓인 소고깃국, 쌀밥 그리고 조각난 겨울 동태가 밀가루에 붙어 프라이팬에 있는 기름 속에 잠길 때 나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어린 형제들의 눈 속에서 왔습니다. 이 설에 책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꼭 사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게 의미 있다고 그게 다른 사람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경로와 생각 구조가 다르기에 이 책이 꼭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에게 자양분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뒤 살아가는 것은 아프다. 정말 아프다. 복도 걷다가도 아프고 냉장고 열다가도 아프다. 양말 신다가 아프고 이를 닦으면서 아프다. 음식 맛도 무감각하고 색깔도 느껴지지 않는다. 음악 들으면서 아프고 추억을 떠올려도 매한가지다. 어느 때에는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들이 상실감을 더 짙게 한다. 애도는 이런 면에서 외로운 일이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합니다. "가족이 내 세상이었고 세상의 중심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일찌감치 글 읽는 법을 가르쳐 줬다. 공립 도서관에 데려다줬고 내가 책장의 단어를 소리 내어 읽는 동안 곁에서 다 들어주곤 했다. 아버지는 시청 노동직 공무원들이 입는 파란 작업복 차림으로 매일 출근하였다. 퇴근 후 밤이면 우리에게 재즈와 미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부모님은 대화할 때 우리를 어른처럼 대했다. 결코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우리가 묻는 질문은 아무리 유치한 것이라도 끝까지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고 편의상 결론을 서두르는 일도 전혀 없었다. 대화는 몇 시간씩 이어지곤 했는데 …". 이 책은 자신을 길러준 부모와 친척을 시작으로 저자가 만난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배우고 겪은 이야기를 섬세한 표현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26 살에 죽은 절친, 55 세 운명을 달리 한 아버지, 그 후 오빠 손에 이끌려 들어간 결혼식과 남편, 자신이 낳은 두 딸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가 가을날 낙엽 떨어지듯 읽는 제 마음속에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커텐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삶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가구처럼 존재해 있는 미국의 생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입니다. 학교 도서관에 부탁한 책은 원본이었는데 제게 온 책은 번역본이었습니다. 정말 섬세한 번역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책은 이번 설에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건 미국 상황에서 자란 저자가 우리의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꼭 잊지 말고 읽으라는 겁니다. 자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인종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책일 겁니다. 책 덮으면서 울려지는 감동이 제 가슴을 떠날까 봐 꼭 붙잡습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6

Dream(강아지똥 OST) _ 이루마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저 멀리서 별이 내려올 때
울지 말고 바라봐요
내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쉽게 놓쳐 버릴까봐
그만 놓쳐 버릴까봐
걱정말고 믿어봐요 나의 꿈을
잊지 마요 나의 꿈을
걱정말고 믿어봐요 나의 꿈을 잊지 마요
울지말고 바라봐요 나의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더럽고 쓸데없는 찌꺼기똥'이라며 눈물을 흘리던 강아지똥이 별을 보았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다음날이면 드높은 하늘에서 별은 아름답게 반짝거렸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더러운 똥이라도 조금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았다. 강아지똥은 그렇게 가슴 한 곳에 그리운 별의 씨앗을 하나 심었다.

어느 틈에 별은 강아지똥의 희망이 되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나도 꼭 무엇엔가 귀하게 쓰일 거야." 강아지똥의 간절한 바램은 녹아지고 스며져서 마침내 별처럼 고운 민들레꽃을 피워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기는 소재를 주인공으로 한 권정생의 『강아지똥』은 1969년 월간 『기독교교육』에서 주최한 제1회 아동문학상 당선작이 되었다. 『강아지똥』을 '출품 전의 원작, 1969년의 당선작, 1996년 정승각의 그림책, 2003년 권오성 감독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2009년 백창우 작사 작곡의 동요' 등을 비교하며 읽는다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어린이집

▲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는 안미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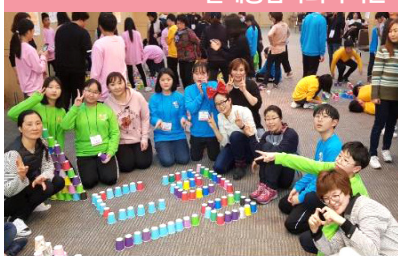
사랑과 추억의 졸업예배

대학어린이집 졸업예배가 21 일 오전 11 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이기훈 목사가 '사랑하는 친구들아 안녕'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항상 주 안에 살도록 말해주었다 .

졸업식은 졸업장과 상장 수여 , 동생들의 송별가와 졸업생 답가 , 담임교사 편지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다 . 믿음반 동생들이 아쉬움을 담은 송사와 직접 만든 목걸이 전달식이 펼쳐졌는데 서로 간의 사랑과 추억을 나누고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됐다 .

학부모들은 "믿음 안에서 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 .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어 양육한 지난 시간이 은혜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교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였다 . [**사랑반 이다솜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팀별 활동으로 팀원들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

2019 년 꿈꾸는 아이들 _ '친해지기 캠프' 참가

지난 15~16 일 , '꿈꾸는 아이들 사업' 에 총 20 명 (참여 아동 10 명 / 학부모 10 명) 이 양평 한화리조트로 ' 친해지기 캠프 ' 에 다녀왔다 . 이번 캠프는 월드비전 서울동부지역 소속 꿈꾸는 아이들의 5 개 참여기관이 진행한 자리이다 .

첫날 사전활동은 ' 가족 나무 액자 ' 와 '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 로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식에 접근하였다 . 오후 발대식과 함께 아동은 기관별 협동과 친밀감 증진을 높이기 위한 팀 빌딩 활동을 가졌다 . 학부모들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친밀감을 높여줄 교육에 함께 참여했다 . 이튿날 튜빙 썰매 장을 방문 , 자녀와 학부모가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담았다 .

이번 친해지기 캠프는 아동과 부모님 모두에게 가족 간 사랑과 감사를 새겨준 귀한 시간이 되었다 . [**복지서비스팀 1 이주혼**]

꿈빛어린이집

▲ 졸업식 마친 미래 세대 주역들이 멋진 추억을 새겼다 .

뜻 깊은 졸업식

지난 22 일 제 26 회 졸업식이 어린이집에서 열렸다 . 부모와 졸업생 60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정지원 어린이 외 17 명의 유아들이 이날 졸업장을 받았다 . 김신덕 원장은 졸업하는 유아들을 향해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준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 . 앞으로도 자신의 아름답고 멋진 꿈을 소중하게 키워나가길 바란다" 라고 축사해 주었다 .

특별히 지나간 추억이 담겨진 사진 영상자료를 함께 시청할 때 유아들은 밝은 웃음이었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성장에 대견스러워하였다 . 이어서 유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가 감동을 더했다 . 부모님들이 눈시울 붉히기도 하는 등 즐거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뜻 깊은 졸업식이었다 . [**민들레반 교사 김태연**]

성서대학교회

▲ 특별새벽기도회 안내용 포스터

특별새벽기도회

성서대학교회는 지난 2018 년 40 일 특별새벽기도회 "구약 이야기" 에 이어 2019 년도 30 일 특별새벽기도회를 11 일부터 6 주간 진행한다 . 새벽기도회는 "신약이야기" 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권씩 27 권 전체를 통해 구속사를 살펴보게 된다 .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신약사의 흐름을 매일 책별로 접근해 간다 . 개관과 핵심 주제 , 유형과 내용 등을 조망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에 온전히 다가서는 시간이다 .

2019 년을 헤쳐가야 할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밭에 접근해 하루를 경건히 준비하고 다짐케 해줄 특별새벽기도회다 . 은혜의 메시지를 염원하고 이루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자리한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 [**서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조지선 원장이 수료증을 전하고 있다.

감사의 수료식

지난 20 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만 4 세반 형님들의 입장으로 시작된 수료식은 원장님 기도와 축복의 말, 재원생의 축복송, 그리고 수료증 수여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별한 순서로 이번 행사 축하를 위해 참여한 가족들과 함께 동영상 시청이 진행됐다.

자녀들의 지난 행적이 잘 표현된 사진과 동영상이 시선을 끌었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오늘 이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상계백병원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더해진 때문이라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친인척의 따뜻한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 준 귀한 시간이 되었다. **[푸른반 이은경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우리의 고유 놀이인 자치기를 열심히 즐기는 유아

얼씨구 ~ 신난다 ! 정겨운 우리놀이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 '정겨운 우리놀이 & 형님이 되어요' 코너를 지난 7 일부터 28 일까지 진행하였다. 행사는 윷놀이, 명절음식 만들기, 칠교놀이, 딱지치기 등 총 13 개 코너로 운영되었다. 입학 후 부쩍 성장한 영유아 대상으로 내 키만큼 블록 쌓기, 형님반 축하파티 등을 포함, 명절 이후까지 흥미를 갖고 놀이에 참여토록 하였다. 영유아들은 실제와 같은 명절음식과 떡을 보며 신기해하였고 친구들과 전통놀이 경험자체에 흥미와 유쾌함을 나타냈다.

영유아의 전인발달과 보육과정을 고려한 이번 체험행사로 노원구의 더 많은 영유아들이 신나게 놀며 밝고 건강한 자아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임지혜 보육전문요원]**

상계5동어린이집

▲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전하는 졸업생들

2018 학년도 제 8 회 졸업식

지난 22 일 '2018 학년도 제 8 회 졸업식 ' 이 진행되었다. 만 5 세반 유아 22 명이 졸업하였으며 만 4 세 유아반과 가족 및 친인척 등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졸업식은 졸업증서 수여, 운영위원회 감사패 수여와 송사 및 답사 순서로 차분하게 이어졌다. 교사들의 졸업축하동영상, 1 년 생활을 기록한 추억 감상하기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동영상 및 노래선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졸업생 1 년의 추억을 담은 동영상과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동영상이 화제를 낳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보살펴준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편지 동영상과 노래선물까지 더해져 가슴을 덥혀 주었다. 졸업식이 친구들에게 귀한 축하와 사랑을 안겨 준 시간이 되었다. **[온누리반 장나혜교사]**

늘사랑어린이집

▲ 떠나는 아쉬움을 합창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졸업생들

따뜻한 졸업식

지난 20 일 늘사랑어린이집 제 3 회 졸업식이 동생들과 학부모 및 친지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동생들이 떠나는 아쉬움을 담은 노래선물과 1 년 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흘러나오자 졸업식장은 웃음과 아쉬움으로 젖어갔다. 이어서 원장과 담임 교사가 마음이 담긴 편지를 낭독할 때 식장은 숙연한 분위기가 됐다. 14 명의 유아들에게 졸업장이 수여되었고 교직원 모두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축복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부모들은 "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 첫 기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며 교직원 모두와 포옹과 악수로 감사를 전하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다.

원장 및 교직원은 졸업생과 학부모에게 '함께 할 수 없음에 아쉽지만 재원생과 신입생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인사하였다.

[늘사랑반 한보연 교사]

충무어린이집

▲ 졸업생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인경 원장

축복과 감사 속 졸업식

지난 20 일 제 27 회 졸업식이 하늘반 11 명의 아동과 학부모 및 가족 친지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졸업생들은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담아낸 영상물을 감상했다. 어엿한 예비초등입학생이 된 현재에 이르는 순간까지 지난 흔적을 되돌아보던 가족과 선생님들은 대견하다며 축복과 격려로 뜨겁게 응원해 줬다. 졸업장 수여와 모범상 시상이 이어졌고 떠나는 아쉬움을 글로 낭독할 때 모두는 뭉클함을 느끼게 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함께 지내온 아이를 껴안고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을 맞을 때 선생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보내는 아쉬움과 새롭게 재원하는 친구를 맞는 기다림의 졸업식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충무어린이집 공동체에게 축복과 감사가 가득하길 희망한다.

[이은혜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삼일교회(송태근 목사)	8,000만원(운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만원(장학)
故강덕희(텍사스대학 교수)	18,000달러(운영)	강혜정	1,500달러(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80만원(운영)	모퉁이돌선교회(이삭 목사)	141만원(장학)
서문교회(이성화 목사)	645만원(운영, 장학)	김은호(부총장)	115만원(운영)
오에스더	3,000달러(운영)	서수경(신학대학원 23회)	110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287만원(운영)	원영희(사회복지학 교수)	110만원(운영)
김성경(사회복지학 교수)	220만원(장학, 발전)	유정선(신학부 교수)	110만원(운영, 발전)
경성교회(박종걸 목사)	210만원(장학)	교수부(교수상조회)	100만원(장학)
(재)연당장학회	200만원(장학)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성수시온교회(김성봉 목사)	200만원(운영)	한동선.이영실(세명기독병원 이사장)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0.5구좌 강동란
1구좌 강영규 구세경 김경혜 김민욱 김승현 김진하 나선영 박문홍 박순임 박영근 박영자 방지연 백해송 손혜진 이미정 이희윤 전한나 정선도 정연오 조영희 최예본
2구좌 신화영 오상석
3구좌 서명주 이주연
4구좌 배정환
10구좌 신호정 최대만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김미영 류은미 박덕자 박덕자 양승원
2구좌 권민주 김장호 오철송
10구좌 김도경
16.6구좌 최영태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박미영

부설기관

1구좌 길준호 김지은
3구좌 박천순
5구좌 서영숙

권선제일교회

1구좌 이상규

동광교회

1구좌 배윤.김현진

삼일성서교회

1구좌 정혜란

중앙성서교회

1구좌 김세현
10구좌 무 명
15구좌 이혜선

함평대동교회

1구좌 김희경

일반

1구좌 김균태 김기수 김동우 김유벽 문해영 최서영
2구좌 장병길
3구좌 김미수
5구좌 이미경

단체 및 기관

2구좌 평안교회(응암)
3구좌 신작교회
10구좌 상일교회
30구좌 노아인터내셔날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시내 이아람 정다운 무 명
1만원 강명희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귀남 권명순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경혜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경 김민정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보민 김보희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일준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차욱 김춘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현정 김현진 김혜선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영주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진기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박효빈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희영 성순애 성한나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송명훈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신호영 신화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명휘 오세천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왕지희 우승연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정례 유지영 윤솔이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정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예진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희윤 임삼일 임은성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희남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은숙 정은영 정인철 정지용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믿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지영환 진병원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민영 최서희 최선경 최수연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은비 최종운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창 한원창 한정은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홍진기 황선명 황승호 황인숙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곽연희 구연민 국소영 권오경 김경희 김기옥 김명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복녀 김샛별 김성훈 김순녀 김승용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태분 류 정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송 박지은 배혜인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손화진 송만호 송민규 신정섭 신정화 오상석 오정순 오찬양 왕용분 유순희 유주홍 윤광길 이구영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성종 정주영 조성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하지혜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고하은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김다예 김보라 김세련 김수진 김아란 김종숙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송성은 신은숙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유예진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예은 이예지 이우진 이재국 이주연 이혜민 임유미 장영훈 전병민 전영이 전지혜 정선희 정슬기 정재연 조은경 진성지 최광희 최소린 최은희 태지선 한보미 홍석화 홍예지 황영숙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기주

기부자 명단

이윤정
5만원 강동란 권오찬 김세영 김연수 김종남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송현미 안선례 양원석 이부호 이지은 전은진 조연정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허정원 홍현숙
6만원 양광석 정동주
7만원 임연식
9만원 조현석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신치선 신호정 최대만 하석실
11만원 유선미
100만원 이례장학
200만원 서수경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김제형 김지원 박은혜 서 융 이가윤 르엉티튀짱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권순길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윤옥 김은이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서이현 성인선 송기운 신연정 신영옥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동기 이성민 이원혁 이혜진 임동화 정창금 최상모 최인호 홍경희
1만5천원 고병재 이하은
2만원 공진희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오옥경 이영림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성순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미혜 박재완 박창근 서재형 이다혜 이종권 조대의 채형찬
3만5천원 강하늘 권은지 이진영 조현경
4만원 유윤상
5만원 김형태 이지은 이한빈 정미영 허용철
6만원 구혜경 이성은
6만5천원 김시내 류한나 이경민
10만5천원 정혜민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고아라 권관희 김미영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은실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기훈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이호섭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은상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최민주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동준 김세원 김인화 김장호 문행자 박성범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임현필 장지순 정영은 진달래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은영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유다운 이소연 정순애 추연진 한요게벳
3만8천원 전영호
4만원 김덕원 김병수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성호 김현동 박현희 신금주 안미란 유미나 장정순 최사랑
6만원 고성산 양희정 이성아 임환석
7만원 이광삼
8만원 유수연
9만원 권경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승호 김웅기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신지수 안현미 오은주 이소정 이은광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진경선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11만원 김중완 이복남 최지은
100달러 강일로
12만원 이강동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한진호
15만원 김량헌 김희수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안정선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최선희
70만원 이민규
110만원 원영희 유정선
115만원 김은호
1500달러 오영돈.강혜정
220만원 김성경
287만원 강우정.강 진
3000달러 오에스더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길준호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서애진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최선영
2만원 전안나 차도영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수진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박미애 박선경 박천순 백예나 변송이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이효빈 임미숙 임보나 임지혜 장수진 장지영 정미옥 정혜란 최은혜 최하나 탁지혜 한민희
4만원 박미선
5만원 강진아 박연희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이인경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차 건
20만원 김승옥
25만원 신영자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3만원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645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5천원 곽규상 김판근 김화영 박진석 이상록 정희선 최진두
1만원 강경혜 강선영 고미숙 권정화 김다혜 김동준 김배열 김병철 김상은 김숙재 김순자 김신덕 김영희 김온순 김윤선 김인영 김인자 김주혜 김지영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혜옥 김혜진 남윤주 남지영 두미옥 박용숙 박이숙 박인숙 박정하 박천순 박혜영 방미경 백순옥 성윤선 손진희 송인희 심애경 안숙진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윤아 유상호 이가은 이관영 이길우 이대영 이대한 이영주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임 이정철 이종옥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진호 임성일 임숙정 장병호 장인순 전하준 전해성 정갑순 조건희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최명순 최미숙 최영태 최용석 한성실 허진순 홍기순
1만5천원 오정연
1만7천원 박태수
2만원 강규성 권정숙 김겸일 김덕현 김예지 김희자 무 명 박경상 박선하 박온유 백향원 변경선 양태환 오경모 용정자 유정선 윤영원 이봉호 이승림 장근문 장혜린 장홍림 전광심 전옥순 정나영 정도유 정명수 정승연 조성민 하명란 황서린
2만5천원 권경만 김미선 임용택
3만원 강유진 김영헌 김은미 김일선 김현석 이노선 이은실 최순남
4만7천원 김웅기
5만원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최정권 한진호
6만원 김원태 이소정
8만원 전명진
12만원 최봉순
60만원 한동철
68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상오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열방교회

2만원 열방교회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5만원 김종구 한금례 원로 · 은퇴장로회 권사회
8만원 김옥자
10만원 무 명 이혜선 한상욱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차형미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2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유순남 홍성일
2만원 김양례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범준 김승애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오미라 오현숙 원영훈 유제범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조준성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하경국 한상은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은비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윤주원 윤주하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김에스더
3만원 김미수 장문석 조은채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강보경 노신희 류동원 박경혜
20만원 무 명
30만원 박순정
750달러 남명우
100만원 한동선.이영실
18,000달러 故강덕희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드/행복한교회
1만5천원 도서관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트코리아/문양교회/성복중앙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교회/우리교회/의정부좋은나무교회/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다드림교회/삼일교회/상일교회/일동성서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무
50달러 우리침례교회
10만원 (주)아이앤유니/(주)이레E&C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만나교회/상록교회/생명샘교회(성주)/신창제일교회/오감발달연구소
14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무명/새중앙교회/서부중앙교회
24만원 평안교회
30만원 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40만원 구리성광교회
50만원 수정교회/인평교회
100만원 교수부
141만원 모퉁이돌선교회
200만원 (재)연당장학회/성수시온교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0만원 경성교회
8,000만원 삼일교회

소계(20190121~20190220)
173,382,762
누계(20180301~20190220)
1,145,156,419